

새롭게 탈바꿈한 향군 안보활동

(향군이 이렇게 변했습니다!)

□ 개요

향군은 창립 65주년과 36대 김진호 회장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의 안보활동을 분석하여 회법에 명시된 '**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**' 하 명실상부한 **국가 안보정책지원단체**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음.

□ 배경

- 과거 향군은 기준 없는 안보활동으로 참여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고 다양했으며 주로 대정부 관련 활동으로 외부(정치권 등)에서는 이를 **정치적 활동으로 평가**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.
- 특히 집회 활동에 있어 향군 독자적인 행사 보다 **성격이 다른 단체와 연합 활동**으로 향군이 전체의 일부로만 비취짐은 물론 행사 주제 관련 내용, 인원 동원, 비용 제공 등에 관한 잦은 의견 충돌로 인해 단체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왔음.
- 국민이 바라보는 **향군은 강성 보수단체로 평가** 되고 있음. 이는 향군 구성원이 예비역 군인들로 보수성향이며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임. 이러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**▲ 향군 차원의 지구책**이 필요하였고, 각급회에서도 향군만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**▲ 단독 행사 요구**와 제도적 차원의 **▲ 안보 활동 방향에 대한 지침**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.
- 이에 향군은 **북 핵·미사일 위협 등 6.25 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 위기**가 계속되고 있는 **▲ 현실적 안보위협 ▲ 문재인 정부 출범 ▲ 36대 향군회장 취임**을 계기로 변화된 안보 상황을 적용한 **안보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립**하여 향군이 한 방향 한목소리를 통한 새로운 안보 단체로서 탈바꿈하게 되었음.

□ 경 과

- 2017. 5. 10 : 문재인 정부 출범
- 2017. 8. 11 : 김진호 제36대 향군회장 선출 / 취임
- 2017. 9. 12 : 북 핵·미사일 도발 규탄 국민대회
- 2017. 9. 22 : 애국단체총협의회 탈퇴
- 2017. 10. 31: 향군의 정체성 선포
- 2017. 11. 7 : 트럼프 미 대통령 국민 방한 환영 행사
- 2017. 12. 20 : 향군 안보활동 기조 / 지침 선정
- 2018. 1. 1 : 향군 정체성 확립 원년의 해
- 2018. 2. 1 :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탈퇴
- 2018. 2. 7 ~ 4. 12 : 향군 안보활동계획 순회교육 실시
(본회, 13개 시·도회, 산하업체 임직원)
- 2018. 3. 15 : 향군 남·북 정상회담 지지 광고
- 2018. 3. 22 : 향군 남·북 정상회담 성공 성원 현수막 설치(235개소)
- 2018. 4. 27 : 향군 남·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마음 대회 개최

□ 향군의 변화된 안보활동!!

- 36대 김진호 회장 체제 출범 후 향군 정체성 제정 선포를 통해 '대한민국 최고·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'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향군의 정체성을 '안보단체'로 규정하여 보수, 진보 등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순수 안보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.
- 향군은 명실상부한 안보단체로서 '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'하기 위하여 '향군 안보활동 기조'를 정립하여 지침화하였음.
향군은 안보활동 목표를 국가 안보단체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활동에 두고 ▲ 국민 안보의식 계도 분야와 ▲ 국가 안보정책 지원 분야로 구분, 총 12개 항의 최적화된 안보활동 기조를 선정하였고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이를 공유한 바 있음.
- 안보활동 기조 '국민 안보의식계도' 분야는 『안보활동 3대 중점』을 실천하기 위한 중점별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음.
 - ①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
 - ②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육성되도록 하는 것
 - ③ 한미동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·미동맹 공고화 지원 활동

- 향군은 주요 **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**하면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 활동 관련 의사 결정기구인 '**현안 안보점검회의**'를 통해 안보 활동 기조를 중심으로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**체계를 구축하고 정비**하였으며 **금번 4.27 『남·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마음 대회』**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시한 것임.
- 이를 통해 그동안 향군 안보활동에 대해 제기 되었던 '**정치적 중립의무 준수**' 논란과 기준 없는 활동, 정권에 따라 관변 단체로 전락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**제도적 장치를 마련**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음.
-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'**국가 안보정책지원**'과 관련 하여 **향군 활동 방향과 배치되거나 국익에 영향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**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보활동 기조에 명시하였음. 향군 **기조와 배치하거나 문제가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**하되 필요시에는 **향군 안보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**하는 등 향군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.
- 결론적으로 향군은 향후 안보 활동 시 새롭게 정립한 안보활동 방향에 따라 **국민을 대상으로 안보활동 3대 중점**을 널리 알려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도록 하고, **국가 안보정책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치우침 없이 일관된 향군의 입장(목소리)**냄으로써 국가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임.

대한민국 최고 ·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!